

초등학교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김예성 · 이봉주 · 정익중 · 나은숙 · 김광혁(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 서론

최근 학교에서의 또래괴롭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피해아동의 정서와 행동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들은 불안 증가, 외로움, 통제감 상실, 위축행동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등교거부와 같은 학교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Olweus, 1984; Egan & Perry, 1998). 특히 괴롭힘 피해 학생들의 경우 폭력발생 장소인 학교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므로(이상균, 1999),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에서의 활동을 회피하고,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지니게 되어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또래괴롭힘 현상은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아동들에게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이춘재, 곽금주, 1999).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대상은 주로 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또래괴롭힘 피해 또는 가해자의 특징, 또래괴롭힘에 의한 결과 등에 주안점을 두어 이들에 대한 개입방안을 강구하는 문제중심적이고 사후적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폭력 피해 경험이라는 위험 상황에서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있는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며 위기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고 긍정적 결과를 유도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적응유연성(resilience) 이론에 입각하여, 초등학교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들의 학교적응 측면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적응유연성이란 고난, 역경, 위험상황, 위기, 스트레스 같은 특정 상황, 특히 고위험 상황을 가정하고,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융통성 있게 외부의 힘에 견디고, 성공적으로 이전의 적응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 상황으로(Garmezy, 1993; Luthar & Zigler, 1991),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에게 적용할 경우 학교적응유연성을 지닌 아동이란 또래괴롭힘 피해라는 위험상황에서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아동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충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인,

가족, 사회환경 측면에서 보호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호요인들은 위험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발달경로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현선, 1998).

본 연구는 (1)초등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고위험 상황의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들 중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고적응유연성 집단을 추출한 뒤, 이들을 구별해주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2)위험요인, 보호요인, 학교적응유연성간의 매개적 완충효과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지닌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05년 서울지역 11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 부모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된 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2차년도 데이터이며,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유연성 척도의 일부와 패널조사를 위해 출제된 국어, 수학 학업평가 점수결과를 함께 사용하였다. 위험요인으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기’, ‘따돌리고 무시하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협박이나 위협’, ‘돈이나 물건 빼앗기’, ‘때리거나 발로 차기’ 같은 경험을 얼마나 당했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자존감과 유능감을, 가족관련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와의 유대감, 부모의 교육관여 변인을 사용하였으며, 학교관련 보호요인으로는 사회심리적 학교환경과 긍정적 교우관계를 측정하였다.

성별과 빈곤여부, 가족의 결손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3. 분석결과

한 번 이상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의 수는 조사대상의 66.1%에 해당하는 1109명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도 상당수가 또래괴롭힘 경험을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또래괴롭힘 유형에 따라 피해경험의 빈도를 비교해본 결과 언어형이나 소외형의 또래괴롭힘이 주류를 이루지만, 신체형 또래괴롭힘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전체 또래괴롭힘 경험 집단의 피해경험 점수 상위 50%에 해당하는 동시에 언어형, 소외형, 신체형 세 가지 유형의 괴롭힘 피해를 모두 경험한 아동들을 고위험집단으로 설정하여 추출한 결과, 이러한 고위험 상황의 아동은 249명으로 전체 또래괴롭힘 경험 집단의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집

단간 학교적응유연성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또래괴롭힘 고위험집단은 학교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지닐 수 있는 집단으로 이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한편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아동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이 혼합되어 있는 전체 표본 1677명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유연성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인 54점을 고적응유연성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하위 25%에 해당하는 점수인 44점을 저적응유연성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적응유연성 집단의 경우 49명(19.7%), 저적응유연성 집단은 81명(32.5%)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 집단을 구분해주는 개인적, 가족관련, 학교환경 보호요인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보다 결정적인 변인인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 보호요인 중 유능감과 자존감 모두 고위험-고적응유연성 아동을 구분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련 보호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유대감과 부모의 교육관여가 모두 고적응유연성 아동을 구분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환경 보호요인 중 민주적 학교분위기 변인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교우관계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모형을 살펴보면, 유능감과 민주적 학교분위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들은 통합모형 안에서 그 영향력이 통제되었다. 이를 볼 때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시 이들의 유능감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또래괴롭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또래괴롭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 보호요인이 고위험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개인적 보호요인			가족관련 보호요인		
	B	(S.E)	Exp(B)	B	(S.E)	Exp(B)
성별(여=1)	.050	(.541)	1.051	.316	(.478)	1.372
빈곤여부(빈곤=1)	-.027	(.746)	.974	.392	(.688)	1.480
가족결손(결손=1)	-2.492*	(1.050)	.083	-1.741	(.824)	.175
자존감	.110*	(.065)	1.116			
유능감	.528**	(.179)	1.696			
부모와의 유대감				.291**	(.108)	1.337
부모의 교육관여				.130*	(.060)	1.138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긍정적 교우관계						
Model Chi-square	45.909***			25.797***		
-2log likelihood	105.765			129.386		
Nagelkerke R ²	.453			.272		

변수	학교환경 보호요인			통합모형		
	B	(S.E)	Exp(B)	B	(S.E)	Exp(B)
성별(여=1)	.576	(.505)	1.779	.433	(.616)	1.532
빈곤여부(빈곤=1)	.096	(.703)	1.101	.318	(.821)	1.375
가족결손(결손=1)	-1.943*	(.849)	.143	-1.942	(1.091)	.143
자존감				.043	(.074)	1.044
유능감				.532**	(.196)	1.703
부모와의 유대감				.017	(.073)	1.017
부모의 교육관여				.254	(.139)	1.289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294**	(.090)	1.342	.260*	(.106)	1.297
긍정적 교우관계	.334*	(.140)	1.396	.294	(.183)	1.341
Model Chi-square	35.332***			60.487***		
-2log likelihood	120.938			90.123		
Nagelkerke R ²	.356			.56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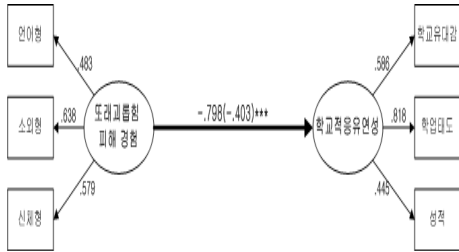
두 번째 연구문제인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라는 위험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매개적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야 하며, 그것이 검증될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보호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보호요소는 이 영향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학교적응유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매개 경로의 추가로 인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통계적 의미를 상실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학교적응유연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03,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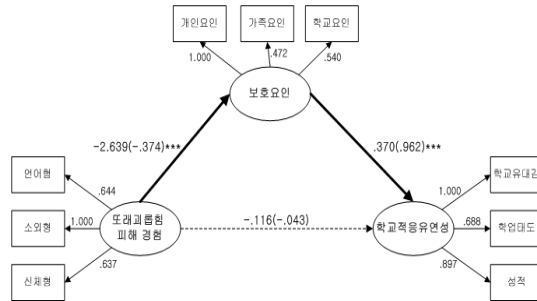
다음 단계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호요인의 매개경로 추가로 인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요인의 매개적 완충효과가 검증되었다(<그림 2>). 매개효과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보호요인에 대해 .374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보호요인은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해 .962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에서 -.403으로 나타났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직접적 영향력은 보호요인의 매개과정을 통해 $-.270(-.374 \times .962)$ 만큼의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경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모형



$\chi^2 = 27.146$ (df=8) $p = .001$,
CFI=.977, NFI=.969, RMSEA=.046

<그림 2>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경로도



$\chi^2 = 208.030$ (df=24) $p = .000$,
CFI=.913, NFI=.904, RMSEA=.083¹⁾

이같은 결과를 볼 때, 또래괴롭힘이라는 위험요인은 보호요인이 없을 경우 학교적응유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보호요인이 존재할 경우 보호요인의 매개적 완충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요인은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일지라도 다양한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보다 적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에 대한 실천적 개입은 무엇보다 이들이 지닌 다양한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확인된 보호요인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연구 결과 유능감과 자존감은 고위험 상태의 또래괴롭힘 피해 상황에서도 학교적응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 과외활동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련활동, 집단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은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각한 학교부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교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

1)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CFI와 NFI는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하며, RMSEA값의 경우 0.05이하면 적정하고, 0.05~0.10이면 보통이고, 0.10이상이면 좋지 않다고 본다(배병렬, 2002).

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지지적인 교사의 태도, 안전한 학교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아동들의 모든 생활을 전담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지니는 훈육방식 및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는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아동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김예성, 2000), 교사와의 관계는 또래괴롭힘 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도와 적응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볼 때, 평소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아이들간의 역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에게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사회복지사는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교사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엇보다 또래괴롭힘 문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적 개입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 피해 학생들을 포함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래괴롭힘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또래괴롭힘 행위에 대한 동조자와 방관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상균, 1999; Rigby & Slee, 1993). 이들 방관자 집단은 피해학생들과 어울릴 경우 자신도 피해를 당하거나 또래관계 내에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 두려워 또래괴롭힘에 대해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영역으로, 언젠가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 행위 없이도 그 숫자만으로도 괴롭힘 행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들의 인지가 그대로인 이상 아무리 피해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또래괴롭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Olweus, 1997), 가해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닌 학생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또래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개입이 요구되며, 이들이 또래괴롭힘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지니게 된다면 그것은 역으로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또래괴롭힘을 근절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예성(2000). 초등학교에서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배병렬(2002). 구조방정식 모델의 이해와 활용. 대전: 대경.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이춘재, 박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특성 및 실태. 서울: 집문당.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Luthar, S. S. & Zigler, E. (1993).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6-22.
- Olweus, D. (1984). Aggression in their victims :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pp. 57-76), NY : John Wiley & Sons.
- Olweus, D. (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Knowledge base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8*(2), 170-190.
- Rigby, K., & Slee, T. S. (1993).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